"역수출로 출판개방의 해일 뛰어넘자"

외국사들 직접출판 준비에 박차 … 어학 · 기술과학 교재출판에 타격 클 듯

"실체를 모르는 가상의 적을 향해 겁에 질린 목소리만 내지르고 있는 상황". 한 출판인은 최근 출판시장 개방에 대응하는 우리 출판계의 상황을 이렇게 꼬집는다.

92년 2월 재무부가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출판시장 개방 방침을 발표한 지 5년이 지난 금년 1월 1일부터 출판시장이 전격 개방되기에 이르렀다. 투자자본의 비율을 50%로 이하로 한정한 제한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외국의 대형자본이 국내에 진입한다면 영세한 우리 출판계를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예측이 무성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카운트 다운이 완료된 출판시장 개방에 대한 우리 출판계의 대응이 전혀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전략을 세우려면 '적'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와 연구작업이 선행돼야 하는 것은 기본. 우리 출판계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정보도, 정확한 조사작업도 없다. 있는 것은 무성한 지레짐작에서 오는 긴장감과 당위론적인 '대응책 마련 절실' 등의 선언적 주장뿐이다.

연락사무소들 현지법인 전환 서둘러

그렇다면 열린 한국 시장을 넘보는 외국 출판사들은 과연 누구인가. 가장 움직임이 두드러진 곳은 아무래도 이미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다국적 출판기업들. 애디슨 위슬리, 롱맨, 맥그로 힐, 엘스비어, 사이몬 앤 슈스터, 존 와일리 옥스포드 등 국내에 이미 진출해 있는 대형 출판사들은 10여개사에 이른다. 주로 공학·기술·의학 등 원서 수요가 높은 분야의 교재 및 전공서적들, 그리고 경제·경영서를 취급한다.

시장개방 이전에는 주로 홍보 및 판촉, 번역중개 업무에 주력하던 이들 기업의 한국 연락사무소가 최근 들어 현지법인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맥그로힐 한국지사(대표 최돈갑)는 이미 법인 절차를 마친 상태. 직접 판매가 가능해졌으므로 당분간은 종래 해오던 홍보업무와 판매업무에 주력할 방침이지만 점차 직접 출판도 할 계획이다. 최돈갑 사장은 "투자 자본 비율이 50% 미만으로 제한된 상황이어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지 고민중"이라고 밝힌다. 초기에는 본사 출판물의 번역서가 중심이 되겠지만 점차 국내 저자의 저작물 출판도 한다는 것이 최사장의 계획이다.

출판개방은 이미 현실이다.
애디슨 위슬리 · 롱맨 · 맥그로힐 등
국내에 진출한 외국사들이
10개사에 이른다.
유통 인쇄계에도 투자의
움직임이 엿보인다.
출판개방에 지나친 수세적
경계보다 질적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적극적
시각이 설득력 있는 때이다.

기술·공학·심리학·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로 아카데미용 교재를 발행하고 있는 미국의 다국적 출판사인 사이몬 앤 슈스터사(대표 이승주)도 이미 3년전에 국내 시장조사를 마친 상태. 현재도 아시아총국이 있는 싱카폴 지사 직원이 정기적으로 방문, 국내 시장의 판도를 파악하는 등 진출을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컴퓨터 분야도 외국 기업의 진출가능성이 높은 분야인데, 일본의 교육 컨설턴트 그룹인 NSG그룹이 우리나라의 안네트와 합작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교육기관 형태로 우선 진출, 출판까지 아우를 것으로 예상된다.

컴퓨터 출판은 정보의 신속성·전문성이 특별히 요청되는 분야인 만큼 기술수준이나 편집능력 등이 앞선 외국 출판사의 진출이 늘어날 경우 더욱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으로 진출 의사를 드러낸 외국 출판사는 없고, 정보문화사(대표 이상만) 등 국내 몇몇 출판사와 외국기업간에 합작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출판의 외국사 진출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높다. 아동물 시장에서 번역물의 비중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역시 아직까지 드러난 진출 기업은 없고, 다만 웅진출판이 프랑스의 갈리마르출판사와 합작을 검토중인 상태다.

유통 및 서점업계도 국내 투자 움직임

한편, 서점 및 유통업계와 인쇄업계쪽에도 국내 투자를 노리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일본의 키노쿠니아 서점이 국내 진출을 목표

출판시장 완전개방을 바라보는 각계 의견

아동출판 **나춘호 · 예림당 대표**

향후 몇 년간은 외국 출판사들이 한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리라 본다. 국내 출판사와의 합작출판도 가능할 것이다. 이중에는 출판사 전체 자본에 대한 투자가 있을 수 있고, 특정 책의 제작비를 부담하는 형식의 자본투자도 가능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아동물 분야에서의 외국 자본의 점진적 유입은 두드러질 것이다. 외국 출판사의 국내 진출에 대해 지나치게 수세적일 필요는 없다. 우리 실정과 정서에 맞는 책으로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 중국 등 다른 국가로 우리 책을 역수출하는 것도 시장개방의 파고를 뛰어넘는 한 전략이다.

기술서적출판 **이종춘 · 성안당 대표**

외국 출판사와 합작 계약을 시도했지만 한국 출판시장의 주먹구구식 행태를 간파하고는 합작의사를 거두어버렸다. 한국 출판시장이 외국 출판사들의 직접 투자를 유도할 만큼의 매력은 없을 것이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서로 번역하겠다고 경쟁해 로열티를 올려주고 거기에 인세도 받을 수 있으니 굳이 직접 들어와 출판할 이유가 있겠는가. 높은 인건비나 해외업무와 국내업무를 총괄할 만한 인력의 수급문제 등 외국 출판사들을 멈칫거리게 할 만한 요소가 많다.

컴퓨터출판 **한상진 · 영진출판사 기획본부장**

우리나라 컴퓨터 출판은 시장은 있지만 지나치게 많은 업체들이 중구난방으로 뛰어들어 전문성이 약하고 규모 또한 영세하다. 국내 필진도 제한되어 있고 편집이나 인쇄수준도 외국에 비해 떨어진다. 정보의 신속성, 세분화·전문화되는 이 분야 출판물의 추세에 미루어 볼 때 외국 출판사의 진출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추진중인 곳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안다. 외국 출판사의 진출이 컴퓨터 출판의 거품을 어느 정도 걷어내고 구조 조정 역할을 하리하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국가 수험서나 잡지 등 한국의 특수성은 감안해야 할 분야 이외에 단행본쪽은 외국 출판사에 내주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어학출판 **박종연 · 문진당 편집부장**

출판시장 개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가 바로 어학교재일 것 같다. 외국 출판사들의 한국사무소가 설립되기 시작한 몇 해 전부터 이 분야 출판사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외국 출판사와 같은 교재 형식이나 원서 중심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곳도 생긴 것으로 안다. 그러나 원서시장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라면 우리 실정과 교육법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내용이나 편집 등에 신경을 많이 써 양서를 출판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인문출판 **박맹호 · 민음사 대표**

시장개방이 그렇게 경계하고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개방화 시대에 사는 만큼 외국 출판사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우리 출판의 질적 발전에 응용할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와 수요에 가장 적중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출판사가 아니겠는가. 초기에야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지만 곧 극복하고 좋은 계기로 활용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우리 출판계가 가지고 있다고 자신한다. 겁내지 말고 외국것도 받아들이고 우리것도 적극적으로 외국으로 수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맥그로힐 출판사의 한국 지사.

로 시장성을 조사했다가 포기했다는 후문이고, 독일의 유수 출판그룹 베텔스만이 국내에 북클럽을 형성해 국내외 서적을 망라한 무점포 판매를 기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로 시장을 100% 개방하기에 이른 인쇄업계쪽에서는 미국의 킨코스 등 두세개 업체가 국내 업체와 합작형태로 진출해 있는 상태. 아직까지는 대형 인쇄소를 차리기보다는 편의점형태로 경인쇄 정도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점차 인쇄의 범위를 넓혀나가리라는 관측이다. 전국에 지점을 설치하고 중앙본부에서 모든 인쇄물을 처리하는 방식의 프랜차이즈 형태의 업체가 들어올 확률이 높아, 영세한 업체들은 타격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다.

시장개방의 여파를 염려하는 많은 출판인들은 시장개방의 문제를 개별 출판사의 이해를 뛰어넘는 거시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명진출판사 기획실의 홍석봉씨는 "시장개방의 여파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을 서서히 잠식해갈 수도 있다"고 경계한다. 출판은 곧 문화를 떠받드는 핵심 산업으로 파악하고 '문화적 종속'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출판시장 개방에 대해 지나치게 수세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출판의 질적 발전에 자극을 주는 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적극적인 시각도 많다. 문제는 시장개방이 자극이 아닌 '자기 상실'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 진출 희망 기업에 대한 조사 작업을 통해 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전략을 세우는 일, 우리나라 출판에 대한 자신감과 이를 뒷받침할 성숙한 노력이 절실하다.

— 박남정 기자

新·개화기 두산100년을 맞이하여 동아출판사가 '두산동아'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DOOSAN 100 1896-1996
두산100주년 기념

어제, 펫 매시니의 재즈 기타에 취했었다면
오늘은, 아인슈타인의 理性에 빠져보는거야!

자유로운 理性을 위한 과학교양서,〈사이언스 마스터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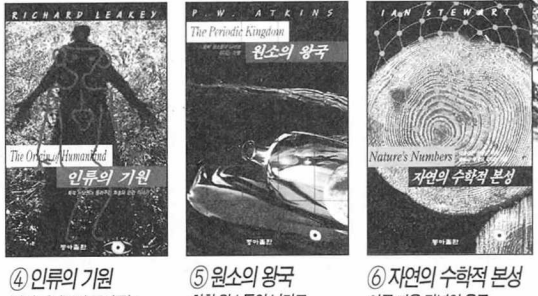
감성만 자유롭다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라면,
理性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사이언스 마스터즈 —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
理性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인류의 기원에서 우주의 미래까지
세포의 진화에서 성의 진화까지 —
이제,〈사이언스 마스터즈〉로
진정한 자유인이 되십시오.

「사이언스 마스터즈 시리즈」 전 22권

① 에덴 밖의 강
유전자로 본 진화의 매커니즘
과연 인류는 무한대로 복제가 가능한 것인가?
유전자의 결합과 경쟁
그리고 새로운 종으로의 분리는?
리처드 도킨즈 지음

② 마지막 3분
지구 최후의 운명에 관한 시나리오
2126년 8월 21일,
거대한 혜성과 지구가 부딪친다.
남은 시간은 3분, 지구의 운명은?
폴 데이비스 지음

③ 우주의 기원
우주 최초의 흔적에 대한 탐사
코비위성이 전한 우주의 비밀은 무엇인가?
우주의 시작,초팽창, 오늘날의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 비밀의 기원을 찾아간다
존 배로우 지음



④ 인류의 기원
화석 사냥꾼이 들려주는 최초의 인간이야기
인류는 과연 20만 년 전 아프리카의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6만 년 동안 지구의 주인이었던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진 이유는?
리처드 리키 지음

⑤ 원소의 왕국
화학 원소들의 나라로 떠나는 여행
어떻게 주기율을 통해 우주 만물을 이해할 것인가? 물질의 핵심으로의 산나는 여행이 될 것이다
피터 앳킨즈 지음

⑥ 자연의 수학적 본성
아름 다운 관념의 우주, 수학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
눈송이는 왜 모두 6각형인가?
호랑이는 줄무늬, 표범은 점박무늬인 이유는 무엇인가?
수학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
이언 스튜어트 지음

정가:각권 6,800원
※계속 발간 됩니다.

DOOSAN 두산동아
영업 (02)861-4818/(02)853-5608